

<2018년 7월 29일 주일말씀>

1. 염려를 주께 맡겨라
2. 사연을 들어 보아라
3. 자기를 중심하지 말아라

본 문 베드로전서 5장 6-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는 절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된다.
2. <때>가 되면 높여준다. 또한 <때>가 되면,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알아준다. 그리고 수고한 대가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 준다.
3.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 줄 것을 두고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 한 방울이라도 기어이 땅을 적시듯, 그와 같이 나 여호와와는 정녕코 행한다.” 하셨다.
5.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신다. 고로 ‘참을 수 없는 사랑’ 으로 인생들을 대해 주신다.
6. 하나님이 제일 못 참으시는 것이 ‘사랑’ 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혹은 사랑을 안 받았어도 계속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7. 사람들은 흔히 “고생 돼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한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 오면, 결국 ‘섬겨 주는 자’ 가 된다. <시대 보낸 자>가 그러하다.
8. <섬김을 받는 최고 단계>까지 가면, 결국 ‘섬겨 주는 자’ 가 된다. 왜? <따르는 무리>를 사랑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로 <따르는 무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준다.
9. “섬긴다.” 함은 “사랑한다.” 함이다. <섬기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것’ 이다.
10. <섬기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섬겨본 사람>은 ‘섬기는 것’ 을 그렇게도 좋아한다.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하는 사람’ 이 그렇게도 좋고, 사랑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

11.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만족하지 않으시니, 인생들에게 사랑을 퍼 부어 주신다. 그리함으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 <사랑의 씨를 뿌린 역사>가 일어났다.
12.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최고의 기쁨을 충족하는 일’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도 크다.
13. “하나님을 섬긴다.” 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는 말과 같다.
14. <사랑의 실존 세계>는 곧, ‘섬기는 세계’ 다.
15.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마음껏 사랑해 주고, 그 대상인 인간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일체 되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다.
16.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자’ 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17. <교만>이란, ‘자기중심, 자기 생각’ 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보다 ‘본인의 생각’ 이 크면, 그것이 교만이다.
18.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다.

19. 하나님은 그때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모르는 자들은 “나는 갚음을 받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다.
20. 하나님은 그때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절대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 마치 불을 만지면, 그 행위대로 ‘뜨거움’을 느끼듯이 모든 것이 행한 대로 되도록 해 놓으셨다.
21. <자기 행위의 열매>다. 고로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하면, 누가 벌을 주지 않아도 그 행위대로 본인이 받게 된다.
22.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23. <주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24.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생활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환경에 처하면 그때는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
25. 하나님과 주께 맡겼으면, 생활할 때도 100% 하나님과 주의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을 맞고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고 행실이 돌아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주를 멀리하고, 섭리사를 나가기도 한다. <100% 맡기는 신앙, 100% 믿는 신앙>이 그리도 크다.

26.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100% 맡기는 신앙’을 해야 된다.
27. 하나님과 주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도 주도 책임을 다 져 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주께 맡겨라.
28. 맡기면, 맡긴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
29.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고로 내게 맡겨라. 그리고 맡겼으면, 절대 변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 여호와와의 구상으로 끝까지 해 나가라.” 하셨다.